

교회와사역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조언 - 문제는 공예배

시대의 발전 성경책을 누구든지 쉽게 가질 수 있게 된 것의 소중함을 잊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고 가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던 즈음, 스마트폰의 보급은 또 다른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애플리케이션만 깔면 성경책과 찬송책을 읽고 들을 수 있다보니 굳이 무거운 성경책과 찬송책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됐다. 한편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성경책과 찬송책을 볼 수 있으니 감사한 일이기도 하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성경과 찬송을 봐도 될까? 당연히 봐도 된다. 봐선 안 될 이유가 없다. 보는 것 자체가 나쁠 순 없다. 거부감은 문화적인 차이의 문제일 뿐이다. 문제는 공예배 때도 가능하나 하는 것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있는 성경찬송 애플리케이션 외의 다양한 기능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경을 보다가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뉴스를 볼 수도 있다. 찬송을 부르다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 심지어 설교가 따분하다며 게임을 할 수도 있다.

공예배 때의 바른 태도 우리는 공예배 때의 바른 태도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다른 여러 기능 때문에 예배 외의 다른 유혹에 노출 될 수 있다면 제어와 절제가 필수이다. 공예배에 관한 모범은 "예배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삼가야 한다."는 정신이 기본이다. 즉, 예배 시간에는 오직 예배 그 자체에만 집중해야 한다. 기도 시간에는 기도해야 하고, 찬송 시간에는 찬송해야 하며, 설교 시간에는 모든 감각기관을 설교자에게로 향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는 예배에 전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며, 예배를 방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예배의 경건함을 깨뜨릴 위험이 있다.

모두 다함께 드리는 시간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다. "각자 스스로 제어하게 하면 되지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하기 힘들다.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는 포털사이트 확인, 게임 등은 절제 가능할지 몰라도, 누군가가 보내오는 메시지, 여러 가지 소식을 알려주는 알림 등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다는 점에 서 있다. 더욱이, 공예배는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사람이 함께 모여 드리는 시간이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또한 설교자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다. 회중석에 앉은 성도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로 성경을 볼때,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보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혹여나 다른 것을 본다면 설교자에게 큰 방해가 된다.

성경 찾기 훈련 또 한가지 예배의 교육적 효과도 생각해야 한다. 설교 본문을 찾고 설교 중 인용되는 본문을 찾는 것은, 성경을 찾는 훈련이기도 하다. 많은 교인들이 고작 주일 하루 교회에서 성경을 살펴보는 경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성경을 찾는 방법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함부로 정죄하는 것을 조심해야 함 아주 부득이한 상황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성경책과 찬송책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함부로 정죄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깜박하고 들고 오지 않았거나, 아직 이런 문화적 차이를 잘 몰라서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문명의 기기를 잘 활용해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성경책과 찬송가를 사용할 수 있다. 지하철에서나 집에서 읽고 묵상하는데 사용한다면 충분히 권장할 일이다. 하지만 공예배에서는 절제가 필요하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므로(고전 6:12; 10:23), 때로는 연약한 이들을 고려하여 조금은 수고를 행하는 것이 좋겠다.

- 손재익 목사, [특강 예배모범 특강] 저자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2월은 성령님의 충만과 능력으로 사역하며 목표를 이루는 "기도의 달"이었습니다.

3월은 "현신의 달"입니다. 사랑과 선김으로 풍성한 교회와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니다.

1. 오늘은 **선교주일**이며 급주는 **선교주간**입니다.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전도사,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 **팀사역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주제 : 팀사역이란?
일정 : 3월 첫 주일 오후부터 12주과정 (인도: 김윤경 사모)
3. **WOW 모임** : 3월 2일(토)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4. 교회와 성도,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노환과 질병으로 투병중인 부모님과 가족들, 친구와 이웃들의 조속한 건강 회복, 치료와 퇴원, 의료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5. 입원치료 중이던 유효진 자매가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일정을 마쳤습니다. 유족들을 위한 기도와 위로에 감사합니다.

★ 교우 동정 : 구은강 집사 - 가족 건강을 위해 한국 방문 중

★ 이달의 생일 축하 - 정시현(2.5) 구민경(2.28) 유동숙(2.24)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 세상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축복된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누)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예배 섬김 이	주일예배기도	2/17	2/24	3/3	3/10
		김훈태집사	오정은집사	정홍렬목사	구은강집사
	금요일예배기도	2/22	3/1	3/8	3/15
		최내권집사	최선윤집사	구민집사	구은강집사
	주일헌금위원	2/17	2/24	3/3	3/10
		최내권집사/유동숙집사	유덕하집사/구은강집사		
	주일안내위원	2월		3월	
		구민집사		김훈태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성도의 인성은 영성을 반영합니다.** / 고린도전서 4:6-16

누구든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면 낮은 감성지수도 자연히 높아진다.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의 감성지수는 높고, 낮은 감성지수를 가진 사람의 영성은 깊을 수 없다.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한다. 고린도교회 성도의 경우, 서로의 차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서로를 대적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했으며, 말씀 밖에서 살며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았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 후 변화되고 영성이 깊어지고 감성도 발달하게 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겸손과 사랑으로 영성과 감성이 바닥이던 성도에게 본을 보였다. 우리 역시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좋은 감성으로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자.

나의 신앙과 인생의 발자취는? / 고린도전서 4:14-16

세상의 그 어떤 부모보다 더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바울은 성도를 돌보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돌보았습니다.

선배로서 가장 좋은 길(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보였습니다.

어떤 부모입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됩시다.

나의 신앙과 인생의 발자취는? / 고린도전서 4:14-16

바울 사도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사랑하며 돌보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모보다 더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보여준 아버지의 마음에 관하여 살펴보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만 아버지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던 고린도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살고 있던 그들을 예수께 인도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영적으로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며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역을 위해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계속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노심초사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야단치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그들의 아버지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성경 지식을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고,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돌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가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오며 순종할 때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며 제멋대로 굴 때도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영적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녀라면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의 성도를 향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영적 아버지가 된 자신을 모범으로 삼아 자신의 행실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평생을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애를 쓴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이 바울을 본받아 산다면,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의 신앙선배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따라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으며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예수님을 본받으며 사니 너희는 이런 나를 본받으며 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며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는 단지 우리의 자녀들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한 형제, 자매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내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정과 이웃,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네 영혼이 잠 못 들 때까지 내가 밤사에 잠되고 감격하기를 간구하도라”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치유, 회복, 나눔

February 24, 2019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 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2019년 2월 24일

5-8호

기도의 달

선교주일 / 선교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